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 교육목표의 개발

정유석*, 고윤석**, 권복규***, 김옥주****, 박재현*****, 손명세*****,
이일학*****, 임기영*****, 장기현*****

I. 서론

현대 의학의 비약적 발전은 자연 과학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며, 그 결과 오늘날 의사는 일종의 과학자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사물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학자를 넘어서서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의사에 대한 기대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환자들은 의사가 실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가족과 같이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현대의 문명사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만 진단과 치료의 독점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방침이기는 하지만 의사 집단이라고 하는 전문직에게는 일종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문직의 특권은 그러나 그에 해당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즉 전문직에게는 사회적 책무의 수행과 함께 그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의사가 전문직이라 함은 엄격한 교육과 수련 과정을 통해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음은 물론, 의사에게 걸맞은 수준의 윤리성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는 지식과 기술은 물론, 일정

수준의 윤리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개인의 타고난 도덕적 성품이나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만 맡길 수는 없다. 보호자의 무리한 환자 퇴원 요구를 들어주었다가 '살인방조죄'의 유죄를 선고받은 신경외과 의사의 경우나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는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는 물론, 의사로서의 생존을 위해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윤리 학습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의사 개인의 도덕적 성품이나 가치관은 다를 수 있다해도 의사가 사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공통된 윤리 감각과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료윤리 교육은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공통된 윤리 감각과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단지 사고를 치지 않는 의사가 아닌, 도덕적 삶을 지향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의료윤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 도덕성은 의사라는 전문직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의사에게는 다른 직종보다 강한 도덕적 의무가 부여된다. 예컨대 의료윤리의 기본 원칙인 '선행의 원칙'은 다른 직종에서는 의무로서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사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돕

교신저자 : 정유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학교실, 041-550-6385, drloved@hanmail.net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는 전문직(helping profession)' 이기 때문에 의사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해서 기꺼이 그러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¹⁾

그러므로 비도덕적인 사람이 의사가 되게끔 허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의사가 돈벌이나 출세의 수단으로 환자를 이용한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심각할 것이다. 오늘날 환자-의사 관계에 있어 환자의 자율성과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힘은 여전히 의사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고 전문직의 의무를 다하며, 도덕적 선을 지향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교육과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2006년 전국 4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36개 대학이 의료윤리를 학생들에게 정식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²⁾ 1980년대 초에 일부 의과대학에서 시작한 한국의 의료윤리 교육은 이제 전국 의과대학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의료윤리의 내용은 주로 생명윤리적(Bioethics aspect) 관점인 인간복제, 안락사, 낙태, 유전자 조작 등 지식적 내용에 치우쳐있고, 이해상충, 금전문제, 의사-환자 관계 등 전문직 윤리의 영역에 대한 강조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³⁾ 이러한 전문직 윤리의 영역은 의과대학뿐 아니라 졸업 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전공의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해 보인다. 사회가 기대하는 윤리적 의사란 생명윤리적 관점뿐 아니라 전문직윤리에도 충실한 의사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공의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각 학회를 중심

으로 의료윤리 교육에 관한 구체적 교육목표들을 일찍부터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커리큘럼들을 도입해왔다.^{4,5)} 전공의 시절의 윤리 교육은 그야말로 도덕적 의사를 위한 '마지막 관문(rate-limiting step)'이다. 체계적인 수련제도하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기회를 놓친다면 이후에는 몇 곱절의 노력을 기울여도 같은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대한의학회는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와 함께 2007년 3월부터 1년 여의 기간 동안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 교육목표를 개발하게 되었다.

II. 연구 방법 및 경과

국내 전공의 윤리 교육목표의 개발을 위해 의료윤리교육학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개발팀을 구성하였으며 연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전공의 윤리교육 현황 검토를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2007년 3월 22일에 전공의 윤리 교육목표 개발을 위한 외국사례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학술 세미나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최하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각 나라마다 그 형식과 구조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토론을 통하여 형식과 구조는 핵심 교육과정(core curriculum)의 기본 형식을 따라서 서론-태도-지식-수기-적용의 구조하에 세부항목을

1) Ronald Munson, Intervention and Reflection- Basic issues in medical ethics(5th ed). USA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6.

2) 최은경, 장기현, 김수연, 권복규, 김옥주. 우리나라 의료윤리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6 ; 9(1) : 44-59.

3) 권복규. 우리나라 의료윤리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6 ; 9(1) : 60-72.

4)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Recommended core educational guidelines for family practice residents. 2008. Available from :URL:http://www.aafp.org/x16548.xml

5) The committee on ethics, The college of family physicians of Canada. Family medicine bioethics curriculum. 2008. Available from :URL:http://www.cfpc.ca/communications/ethics/ethicscurric.asp

나열하는 미국식 수련목표보다는 수련목표와 연관된 사례를 같이 제공하는 캐나다나 호주식의 수련목표가 보다 한국 실정에 맞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으로 국내 의료계가 현실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윤리적 물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의료계 전반의 견해를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의료윤리 교육 현황 설문 조사

2007년 5월 중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고윤석 교수를 중심으로 전국 37개 국공립 및 사립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료윤리 교육의 현황과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공의들이 배우고자 하는 윤리적 주제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
- 환자의 권리
- 진료중단이나 유보에 관한 윤리
- 환자의 비밀 지키기
- 의료분쟁에 관한 윤리
-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 동료의사 관계
- 환자-의사 관계
- DNR(Do Not Resuscitate) order
- 장기이식
- 뇌사
- 말기환자 진료

3. 전공의 의료윤리 교육목표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07년 6월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 이견희 홀에서 대한의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와 메디컬 리더십 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워크숍(전공의 의료

윤리 교육목표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의 구체적 목표는 아래와 같았다.

- 우리나라 전공의들이 흔히 부딪치는 윤리문제들의 내용, 종류, 범위 등을 파악, 열거한다.
- 외국의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조사, 검토한다.
- 의사로서 알아야 할 전문직 윤리문제의 내용을 주제별로 열거하고, 전공의 교육을 위한 우선순위를 논의한다.
- 전공의들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시기, 장소, 강사진 등 포함)을 토의한 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들을 도출한다.
- 임상 각과에 공통되는 교육내용의 주제를 논의, 선정하고, 주제에 합당한 전형적인 사례개발과 함께 교육목표 개발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6개 전공의 배출 분과학회의 수련교육 담당교수와 전국대학병원의 교육(수련)부장, 각 대학의 의료윤리 담당 교수 중 60여 분을 초빙하여 “전공의 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와 소그룹 토의를 진행하였고 총 4개 조로 나누어 진행된 토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출하였다.

- 도덕철학이나 의료윤리 이론에 관한 내용보다는 전문직윤리, 직업윤리의 관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항목들을 다룬다.
- 임상 각과에서 특별하게 부딪히는 문제들보다는 임상 의사라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들을 다룬다.
- 전공의를 위한 교육목표이지만 전공의 시절에 국한된 주제만을 다루기보다는 모든 임상 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주제들을 담도록 해야 한다.
- 4년의 수련과정 동안 2개월에 한 주제 정도를 다루는 것을 가정하여 20여 개 주제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최종 집필 주제 선정 및 필진 위촉

워크숍에서 선정된 주제들을 6개 대항목과 20개 소항목으로 분류하였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필진으로 위촉하여 일정한 포맷에 의한 교육목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5. 초고 공동 점검 및 수정

2007년 10월 27일에 전 필진이 완성한 초고를 함께 검토하고 전체적인 문구와 사례를 다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때 의료윤리의 기본 원칙 등 이론적이지만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와 대항목 및 소항목에 대한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6.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2008년 2월 25일, 일차 완성된 전공의 교육목표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와 활용방안을 청취하고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항목의 순서 변경 및 사례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활용을 위해서 교육자용 지침서(teacher's manual)를 개발하자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최종 보고서는 대한의학회에 제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구성

1)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 교육목표는 크게 개요 부분과 각론으로 나누어진다. 개요에는 학습목표의 개발 배경과 구성, 그리고 활용방안을 담았고 활용의 예로 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사례분석의 예를 제시하였다. 각론은 총 6개의 대항목과 20개 소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들은 학습목표

와 몇 편의 사례, 그리고 사례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국내외 참고문헌을 수록하였다.

2) 소항목의 학습목표는 우선순위에 따라 A(핵심필수 항목), B(필수 항목)로 표시하였으며, 총 71개(A-45개, B-26개)로 구성하였다.

3) 사례는 소항목 당 2~4개 정도로 총 47개로 구성하였다. 각 사례는 반드시 주어진 소항목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에 따라서 다른 주제에 중복되는 것도 있다. 사례들은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내용들이지만 모든 사례는 집필진들에 의하여 임의로 만들어진 가상증례로 구성하였다.

2. 의료윤리의 4원칙과 사례분석의 예

각각의 사례를 다루는 기본 원칙으로 Beauchamp과 Childress가 제시한 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⁶⁾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은 자율성존중의 원칙, 악행금지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으로 의료윤리 문제를 사고하는 근간을 이루는 이론이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또한 같은 사례라도 그 사회가 속한 문화적 배경이나 환경에 의해 우선순위가 변하기도 한다. 임상 진료에 쫓겨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전공의들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systematic) 단순화한 사고의 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사례분석의 예에서는 각론 중 한 사례(소항목 17, 사례 41: 수술을 거부하고 대체요법을 고집하는 폐암 환자)를 들어 Hebert의 윤리적 판단단계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예를 제시하였다. Hebert의 윤리적 판단단계는 7 단계로 이루어져있으며 내용은 <표 1>과 같다.⁷⁾

3. 각론

6 개의 대항목에 대한 일반 교육목표는 5~10줄 내의

6) Beauchamp TL & Childress JF. Principle of Biomedical Ethics(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7) Hebert PH. Doing Right: A practical guide to ethics for medical trainees and physicians. Toronto :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표 1〉 Philip Hebert의 윤리적 판단단계

- 1 단계. 사례에 포함된 윤리적 질문들은 어떤 것들인가?
- 2 단계. 사례에 어떤 윤리(도덕) 원칙들이 포함되는가?
- 3 단계. 어떤 선택들이 가능할까?
- 4 단계.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가 있는가?
- 5 단계. 가능한 선택들을 윤리적 원칙과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검토해보라.
- 6 단계. 선택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 7 단계. 당신의 선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행하라!

로 서술하였으며, 각 주제의 핵심 주제를 서론적으로 다루었다. 각각의 대항목에 대하여 2~5개 정도의 소항목으로 세분하였는데, 여기에는 ‘구체적 학습목표’를 일련

번호를 달아 간략히 서술하였으며 말미에 중요도에 따라 〈A〉항목과 〈B〉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대항목과 소항목의 각각의 제목은 〈표 2〉와 같다.

〈표 2〉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 교육목표의 대항목 및 소항목 구성

대항목	소항목
개요	배경 구성 활용 의료윤리의 4원칙 사례분석의 예
환자-의사 관계	(1) 나쁜 소식 전하기/ 의학적 지식에 관한 치료 요구 (2) 환자의 비밀/사생활 보호 (3) 설명동의(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informed consent) (4) 종교적 신념과 의학적 결정 (5) 환자로부터의 선물/금품 수수 (6) 환자와의 애정 및 금전관계 (7) 의료 실수(medical error)의 공개 및 대처
동료 의료인 관계	(8) 동료 의사와의 관계 (9) 병원 내 다른 의료직역들과 관련한 윤리문제
의료 환경과 제도	(10) 과잉/방어진료 문제 (11) 의료 제도 및 보험과 관련된 문제
치료중단과 죽음의 문제	(12) 치료중단 및 유지 (13) 죽음의 정의와 안락사 논의
연구 윤리	(14) 의학연구에서의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15) 연구 진실성과 연구 부정행위 (16)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윤리
기타 전문직 윤리(Professionalism)	(17) 비전문적 진료행위 - 검증되지 않은 시술/보완대체의학 (18) 의사의 이해상충 - 의료산업과의 관계/환자 소개 및 알선/허위광고 행위 (19) 의사와 진실성 - 허위 진단서/의무기록의 위변조 (20)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용

각 소항목 아래는 해당 주제에 관한 가상의 사례를 2~3개 제시하였고 말미에는 참고문헌들을 제공하였다.

4. 활용

개별 소항목의 주제들은 소그룹 토론이나 집담회와 같은 형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개별 수련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 순서에 관계없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사례들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생명의료윤리이론과 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발표자로 하여금 제시된 분석 틀에 의하여 맡은 사례를 미리 분석해 오도록 하고 진행자 혹은 또 다른 발표자가 제시된 참고문헌을 미리 읽어오도록 권고하였다. 소그룹 토론이나 집담회, 어떤 형식이든지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각 수련 병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생생한 사례들이 있다면 제시된 사례들에 더하여 함께 다루어 볼 것을 권장하였다.

IV. 고찰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 교육목표의 개발은 시작부터 몇 가지 딜레마를 전제로 시작하였다. 보다 완벽한 구조 하에서 의료윤리의 이론과 실재를 망라하는 교육목표의 제정이라는 이상과 의료윤리 교육자의 절대적인 부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 열악한 현실 사이에 선택이 필요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국내 의과대학에서의 의료윤리 교육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였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론적인 면에 치우친다는 전제하에 전공의 윤리교육은 보다 현실적인 내용들에 집중하자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 단계에서 개별 전문 과목에만 한정되는 특별한 주제들이나 일반적인 임상 의사들이 접하기 어려운 주제들은 제외시켰다. 낙태, 배아 복제, 유전자 관련 윤리 등 대부분의 의료윤리 교과서에

서 흔히 다루는 주요 주제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특별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향후 개별 전문 학회를 중심으로 하여 더 발전된 체계의 교육목표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자들이 가장 염려한 부분은 금번 개발된 교육목표의 활용에 관한 부분이었다. 교육목표의 단순한 나열만으로는 자칫 서가에 꽂힌 채 사용되지 않는 죽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각 학습목표마다 사례를 달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 교육목표의 활용을 위해서는 개별 임상 학회나 수련병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임상지식과 술기의 습득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전공의 수련의 오랜 틀을 갑자기 바꾸는 일은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각 학회와 수련기관에 전공의들에게 의료윤리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은 부담이 될 수 있는지라 3~4년의 수련과정 중에 몇 차례나 집담회 등의 교육이 가능할는지 고려해서 항목수를 20개로 제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교육목표는 의료윤리 교과서의 목차처럼 다양한 항목을 포괄적이고 체계 있게 담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점은 향후 교육 여건의 성숙과 함께 시간을 두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전공의 의료윤리 교육목표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 그동안 학술 세미나와 워크숍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제안된 활용방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 교육목표는 각 학회 혹은 수련병원의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각 소주제와 사례들은 의료윤리 집담회 (Medical ethics grand rounds)나 소그룹 토의 (Small group discussion)의 형식으로 다루어질 것을 권장한다. 수련기관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 병원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집담회 형식이, 개별 의국별로 진행할 때는 소그룹 토의의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2. 3~4년의 수련기간을 고려할 때 격월 혹은 분기에 한 번 정도 진행한다면 20개의 소주제를 대부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보다 빈도가 적은 경우에는 순서에 무관하게 필요한 소주제만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겠다.
 3. 각 학회와 병원 교육수련부, 더 나아가서 임상 각과마다 의료윤리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위해 학회나 병원의 추천을 받은 담당자를 위한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교육목표를 개발한 주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짧은 시간 안에 각 수련기관 혹은 학회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풀(pool)을 갖추고 이들이 지역별로 순회하여 집담회 등을 인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도움은 각 학회와 수련기관마다 전문 인력이 양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아울러 전공의 의료윤리 교육을 담당할 교육자들이 본 교육목표에 포함된 윤리적 개념과 사례들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자용 지침(teacher's manual)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리적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항상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법적, 윤리적 필수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5. 단순한 권고보다는 병원 평가, 혹은 전문의 고시의 자격 요건의 하나로 의료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전공의 시절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이 개인과 기관에 돌아가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임상 각과의 전문의 고시에 공통 과목으로 윤리에 관한 내용이 출제된다면 본 전공의 윤리 교육목표의 활용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ME**
- 색인어** : 의료윤리, 윤리교육, 윤리 핵심 교육과정, 전공의

The Development of a Clinical Ethics Core Curriculum for Medical Trainees in Korea

CHEONG Yoo-Seock*, KOH Youn-Suck**, KWON Ivo***, KIM Ock-Joo****, PARK Jae-Hyun*****, SOHN Myong-Sei*****, LEE Il-Hak*****, LIM Ki-Young*****, CHANG Kee-Hyun****

In 2007,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KSMEE),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ine (KAM), developed a clinical ethics core curriculum for medical trainees in Korea. This article provides a summary of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developed by the KSMEE. The curriculum consists of six main subjects: doctor-patient relationship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and paramedical persons, ethics related health policy, withholding and withdrawing of treatment, research ethics, and professionalism. Each main subject has three to four sub-sections. All issues were generated by medical ethics experts by means of group discussions and a survey of medical trainees at various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Each subtitle has four parts including a general overview, learning goals, and two to three relevant clinical cases with key references. This curriculum is primarily for medical trainees, who are not well prepared for the diverse ethical challenges and ethical dilemmas they may face during their daily clinical activities.

○ **Keywords** : Medical ethics, Ethics education, Ethics core curriculum, Medical trainees

*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College of Medicine, Ulsan University

***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 College of Medicine, Ajou University